

\*마지막 수정일 : 22.07.27

## ■ [공통: 문학·독서]

01. ①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① 08. ② 09. ③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④  
 21. ⑤ 22. ⑤ 23. ② 24. ② 25. ① 26. ① 27. ② 28. ③ 29. ① 30. ③  
 31. ⑤ 32. ② 33. ④ 34. ①

## [1~3] 독서

## [1~3] 독서 이론, '읽기 능력과 매튜 효과'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별 읽기 능력의 차이를 사회학적 개념인 매튜 효과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휘력 발달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 격차가 점차 커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어휘력 격차가 읽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읽기의 양 때문에 어휘력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 명성과 물질적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인 매튜 효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읽기에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이 작용하므로 읽기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읽기를 매튜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단순 지능의 차이로 읽기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던 관점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읽기 능력의 차이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과 매튜 효과

## 1. 세부 내용 확인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읽기 기능에는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읽기 기능과 더불어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가 읽기 기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매튜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그래프에서 ㉠과 ㉡은 어휘력 수준의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어휘력 차이로 인해 읽기 양에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다시 어휘력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보여 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어휘력의 차이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므로, 읽기의 양이 적지만 어휘력이 큰 쪽으로 높아진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 ㉡의 어휘력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③ ㉠과 ㉡의 어휘력 차이는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된 것이다. 따라서 ㉡이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 ㉡의 차이는 글 읽는 능력이 지능의 차이 때문이라는 관점을 벗어난 것이다.

### 3.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의 근거는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개인 안에서도 속도는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읽기 요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기>의 관점은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읽기 발달의 속도가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상호 작용으로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② 개인의 읽기 속도나 취향 등의 개인차에 따라 읽기 발달이 다르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으며, <보기>의 관점과도 다르다. ⑤ 시간과 장소를 주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보기>의 관점과는 다르다.

### [4~9] 주제 통합

#### [4~9] 인문,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지문해설 : (가)는 한(韓)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담긴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진(秦)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지식의 핵심이 역사 지식이라고 하면서 ‘통물’, ‘통변’, ‘인의’를 설명하였다. 육가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 사상으로 평가된다.

[주제]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지문해설 :** (나)는 조선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초 고려 관련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치평요람』에는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조선 왕조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불교 사상의 폐단을 드러내며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한 것이었다. 『치평요람』의 편찬에서 나아가 세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주제]**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 4.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한(漢)의 사상가인 육가가 저술한 『신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에서는 『신어』가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여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편찬된 것이며 이 책을 통해 육가는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 사상을 내세웠음을 말하고 있다. (나)는 조선의 세종이 편찬을 명한 『치평요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는 『치평요람』이 고려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과 세종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치평요람』에 올바른 정치를 강조하고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며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자 한 입장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는 한(漢)에서 쓰인 책인 『신어』를,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인 『치평요람』을 다루고 있으며, (가)와 (나) 모두가 각각의 책이 쓰이게 된 시대 상황과 책에 반영된 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여 저술된 책이므로 피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다. ③ (가)는 『순자』와 『신어』라는 두 권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순자』는 전국 시대에, 『신어』는 한나라 때에 저술된 것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쓰였다. ④ (가)의 『신어』와 (나)의 『치평요람』은 모두 새 국가의 통치를 위해 역사와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서 실용적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두 책이 다양한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육가가 저술한 책이고, (나)의 『치평요람』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책이므로, 두 책 모두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은 아니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자치통감강목』의 강목체를 따르

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평요람』이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진(秦)의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진(秦)나라 때는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세종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하였고, 『용비어천가』를 통해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6.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육가는 ㉠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으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무위란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이며, 권세란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다. 결국 육가에게 ㉠은 군주의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것이므로, ㉠이 학문 분야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② 육가의 사상은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통해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은 맞지만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③ 육가는 도가의 무위를 수용하면서,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육가는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을 지식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며, ㉠과 ㉡은 이러한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의 긴밀한 연결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육가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왕도 정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육가가 제시한 ㉠과 ㉡은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보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및 인의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 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ㄱ. (가)의 육가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에 요구에 부응하여 『신어』를 저술하고, 이 책에서 진(秦)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육가는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치평요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기존 역사서와 달리 전쟁, 외교 문제 등을 부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ㄴ. (가)의 육가는 『신어』에서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말하였다.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치평요람』에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었다. (가)의 육가와 (나)의 집현전 학자들 모두 국가의 멸망 원인은 정치 운영, 정치 행위에 있다는 내용을 드러낸 것이다.

ㄷ. (가)의 육가는 분서갱유를 단행하고 사상을 통제한 진(秦)에 대해 거론하며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인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나)의 집현전 학자들은 고려 정치와 관련하여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내면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즉 고려의 사상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여긴 것이지 고려에 사상적 공백에 있어 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ㄱ은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역사 서술의 근원이 되는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자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진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ㄱ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과 다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어』에서 육가는 진의 멸망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진위 판별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에서 진실을 중시하는 ㄱ의 관점에 부합한다. ③ ㄴ은 흥망이란 객관적 형세의 흐름인 시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평요람』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책으로,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ㄴ의 관점에 입각하면 『치평요람』에서 서술하고 있는 국가의 흥망의 원인은 시세의 흐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ㄷ은 역사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어』에서는 진의 멸망 원인이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ㄷ에서는 도의 본체는 경서에, 도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있다고 하였다.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고 역사서가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경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을 구현하는 역사서는 ㄷ에서 말하는 도의 큰 쓰임에 해당한다.

###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㉔는 ‘높여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믿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㉓는 ‘어떤 일을 이루도록 꾀하다.’라는 뜻이다. ② ㉖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내부로 모아들이다.’라는 뜻이다. ④ ㉑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라는 뜻이다. ⑤ ㉕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가다.’의 뜻이다.

### [10~13] 독서

#### [10~13] 과학, ‘비타민 K의 기능’

지문해설 : 이 글은 혈액의 응고 및 순환, 혈관 석회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을 만드는 현상이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하여 혈액의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 내 칼슘 농도만 높아지고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MGP라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이러한 혈관 석회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즉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것이다.

[주제] 혈액의 응고와 혈관 석회화 방지에 관여하는 비타민 K

### 10.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혈액의 응고가 혈관 속에서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한다. 혈액의 손실은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겼을 때에 발생하므로, 섬유소 그물이 혈액 내에서 뭉쳐 만들어진 혈전은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것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혈병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만들어진 덩어리이다. 따라서 혈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④, ⑤ 1문단에 따르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혈관 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혈관 내부에 이물질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칼슘의 역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혈액 중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혈액에 있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아 뼈 조직에서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고 비타민 K<sub>1</sub>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칼슘염이 혈관에 침착될 수 있지만,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침착되는 것은 아니다.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칼슘이 혈액 내에 흡수되어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카르복실화에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은 식물에서 합성되며, ㉡은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는 비타민 K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



과 ㉠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3문단에 따르면 비타민 K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을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하는 카르복실화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과 ㉠ 모두 아미노산을 변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과 ㉠ 모두 결핍이 발생하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거나 혈관 석회화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생긴다.

###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트롬빈은 비타민 K가 관여하여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됨으로써 전환된 것이다. (다)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를 투여한다고 해서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비타민 K는 혈전을 만드는 데에 관여하지만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가)를 투여하면 비타민 K의 작용이 방해받아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다. ㉡ 혈전은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친 것이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를 투여할 경우 뭉쳐 있는 혈전을 풀 수 있다. ㉣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트롬빈이 작용을 해야 하며,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가)와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 모두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피브린을 분해하는 (나)는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는 (다)도 피브리노겐의 피브린으로의 전환을 억제하므로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 [14~17] 독서

#### [14~17] 사회, '이중차분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평행추세 가정이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중차분법이 적용되면 사건의 효과는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

이중차분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주제] 평행추세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중차분법의 사건 효과 평가

#### 14.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특정 사건만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3문단에서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1854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고 하였다.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 1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사건)이 없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 정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시행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므로 사건 전의 상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가 작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즉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는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행집단의 다른 시기의 변화로 파악하여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행집단은 P주의 저임금 식당이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20.9 - 19.6 = 1.3$ 명이다. ② 5문단에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비교집단을 Q주의 식당들로 택할 때, 시행집단인 P주의 저임금 식당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효과는  $1.3 - (-2.1) = 3.4$ 명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Q주 식당이나 P주 고임금 식당은 모두 -2.1의 변화를 보여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 17.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수원을 바꿨는데’와 ‘생각을 바꿔’에서 ‘바꾸다’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에서 ‘나다’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오늘 신문에 났다’에서 ‘나다’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결론을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건조주의보를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에서 ‘높이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목소리를 높였다’에서 ‘높이다’는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에서 ‘줄이다’는 ‘힘이나 세력 따위를 본디보다 약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이만 줄입니다’에서 ‘줄이다’는 ‘말이나 글의 끝에서, 할 말은 많으나 그만하고 마친다는 뜻으로 하는 말’로 쓰였다.

[18-21] 고전 산문 - 작가 미상, '소현성록'

**지문해설:** 이 작품은 17세기 중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소설이다. 북송 시대를 배경으로 남주인공 소현성이 세 명의 부인과 살아가며 가족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양 부인의 행적, 유복자인 주인공 소현성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와 입신양명, 석씨의 현숙함과 부녀자로서의 덕성 등 남성 중심의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당대 유교 사상에 따른 가족제도의 올바른 규범을 제시하는 교훈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제]**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 소현성의 가족이 겪는 갈등과 그 해결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에는 여씨와 석씨, 여씨와 상서, 여씨와 양 부인 등 한 인물이 다른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빚는 다면적 갈등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에서 배경 묘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알지 못하겠도다. ~임자를 찾아 주리라.'"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에서 계성의 독백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청운당을 비롯하여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 공간이 나오지만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③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상서가 여씨를 엄숙하게 책망하자, 여씨는 '크게 부끄러워'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석파는 여씨, 석씨 등 소현성 집안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여씨가 꾸민 일에 대한 실상을 밝히는 일과 같은 집안일에도 관여하고 있다. ② 상서가 한 말인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를 통해 상서가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양 부인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죄를 지은 여씨에게 벌을 주고, 시녀들인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어 집안을 평정하는 등, 권위를 지니고 며느리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⑤ 여씨가 회면단 푼 물을 먹지 않고 버티자 소씨는 여씨에게 회면단을 먹이려고 '우김 질로 들이붓'는 등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

##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④ ㉠은 석씨가 받는 총애를 석파가 여씨에게 자랑한 것을 두고 석씨가 석파의 경솔한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한 말이다. 그리고 ㉡은 ‘상서가 정색하’면서 여씨에게 어디 갔었느냐고 묻자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씨가 거짓으로 꾸며 낸 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석파의 독선에서 나온 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석씨가 그러한 석파의 행동을 꾸짖어 나무라는 말로도 볼 수 없다. 상서가 여씨의 그릇된 행동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의 말이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다.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은 상서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일 뿐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은 아니다. ③ ㉠은 석씨가 ‘내키지 않아 당부하’면서 한 말이므로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은 여씨가 상서를 속이기 위해 한 말이므로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석파가 한 언행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말이며, 석파에게 얻은 정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은 상서가 여씨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보를 여씨가 몰랐기에 할 수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⑤ 상서는 여씨가 화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금수의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여씨가 앞으로 ‘과실을 고쳐’ 나가길 당부하며 여씨를 교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어젯밤 일’은 여씨가 꾸민 음모와 악행의 실상을 밝혀낸 것이며 그 처분으로 양 부인이 여씨를 내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사건에서 상서와 양 부인이 저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일 뿐 여씨의 처벌 방법을 두고 둘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씨는 자신을 석씨와 견주면서 석씨의 훌륭함에 질투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여씨는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 하는데, 이는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하고 집안에서 석씨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여씨가 석씨를 모해하고자 꾸민 ‘봉한 것’은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지며 양 부인은 ‘봉한 것’을 풀어 보고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함을 목도하게 된다. 이는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여씨)와 조력자(시녀 계성)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③ 양 부인이 ‘그 글’을 불사르고 시녀들에게 누설을 금지하여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여씨가 꾸민 음모의 실행은 잠정적으로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여씨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었으므로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회면단’을 먹자 화씨로 변했던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로써 음모자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인 약을 먹고 변신하는 것이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황희, '사시가' / (나) 조우인, '자도사' / (다)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지문해설 :** (가)는 연시조의 형식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1수에서는 봄을 배경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밭을 가는 분주한 일상이 나타나며, 2수에서는 여름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옷을 입고 밭을 갈다 녹음이 우거진 곳에 누워 잠드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3수는 붉게 물든 골짜기에 대추와 밤이 익어 가는 풍경과 추수를 끝낸 논에 게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함께 술을 걸러 먹으리라는 화자의 흥취도 제시되어 있다. 4수는 새도 사람도 하나 없는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에 홀로 낚싯대를 드리운 노인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사계절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풍류

(나)는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옥에 갇힌 작가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가가 광해군 때 시화(詩禍)를 입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도사'에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역모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다)는 전통적인 집에 얽힌 아름다운 기억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면서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살았던 집은 '그'와 가족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공간으로 모든 것이 뚜렷하고 명료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 역시 명료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글쓴이는 탄생과 죽음이 있던 전통적인 집의 역사는 끝이 났으며 탄생과 죽음이 없는 현대의 쓸쓸한 집만이 남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주제]** 전통적 집에서의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그리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제1수>의 '강호에 봄이 드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

용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음력 선달 거의로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한 긴장감의 조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는 자연 속의 삶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 역시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며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다)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료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달리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비하여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과의 문답의 형식을 취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다)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전원생활을 하는 화자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초월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임이 계신 곳을 ‘천문구중’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초월적 공간을 확인할 수 없다.

## 2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제2수>의 초장에서는 샷갓에 도롱이를 입은 후 가랑비 속에서 호미를 메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밭을 맨 후 녹음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풍경이 묘사되고 있지 않다.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나타난 인물은 가랑비 속에서 밭을 맨 후 녹음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3수>의 초장은 가을에 밤이 떨어지는 모습이므로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가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3수>의 초장은 밤이 떨어지는 모습을, 중장은 벼를 벤 논에 게가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초장과 중장이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4수>의 초장은 겨울 산에 새도 보이지 않고 들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므로 동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적 분위기가 나타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한겨울의 추위를 걱정하여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한다. 따라서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에는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임의 옷을 기우

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구중궁궐에 가는 것이 아득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간장이 다 썩고 뉘조차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자신을 애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백일’은 임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고, ‘뒤집힌 동이’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므로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은쟁’은 악기이고, ‘월곡’은 원망하는 마음을 담은 곡조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녹음’은 자연 속 공간으로 화자가 누워 있는 곳이므로 평온한 분위기의 장소라 말할 수 있다. (나)의 ‘동방’은 임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므로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라 볼 수 있지만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의 ‘자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있지만 (가)의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④ (가)의 ‘잠든 나’의 ‘잠’은 전원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보여 줄 뿐 꿈을 통째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볼 수는 없다. (나)의 ‘임의 잠’을 깨우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꿈을 통째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돌아가니’는 익은 술을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계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동짓날 자정이 돌아오자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고 있으므로 ‘돌아오니’가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그 집’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인 반면, ‘아파트’는 그러한 비밀들을 아예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 집’에서 자란 ‘그 집 아이들’은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면 다음날 비가 온다는 비밀을 알았다. ③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사계절이 불분명한 아파트에서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집’에서 알 수



있는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④ ‘그 집’은 탄생과 죽음이 있는 공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구도 그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며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은 아파트를 가리킨다. 글쓴이는 아파트에서의 삶은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는 낚시의 깊은 맛에 몰입한 사람을 보며 그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자는 전원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저 늙은이’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저 늙은이’를 작가로 본다면 (가)는 전원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아녀자’를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힌 작가로 볼 경우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그’를 작가로 볼 경우 이는 작가 자신을 타자화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하면 개인적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다.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을 포함시킬 경우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우리들’이라고 말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다.

## [28~31] 문학

### [28-31] 현대 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 방삼복이 미군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방삼복은 백 주사를 만나는데,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된 아들 덕에 권세를 누리다가 해방 직후 성난 군중에 의해 집과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만 보전하게 된 인물이다. 미천한 일을 하다가 기회를 틈타 권세를 잡았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과, 그런 방삼복을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찾을 궁리를 하는 백 주사는 모두 해방기의 부정적 인간상을 나타낸다.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태 풍자

##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뜯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방삼복은 술을 정종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종을 데워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차에서 내린 뒤, 어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9.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과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30.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⑥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⑧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⑥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그의 광애는 ~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②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 ‘있었더라’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 고만두고 말이었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④ [D]에서 ‘백 주사가, ~ 고리대금을 하고 하엿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 [32~34] 문학

#### [32~34] 현대시 - (가) 신동엽, ‘향아’ / (나) 기형도, ‘전문가’

**지문해설 :** (가)는 ‘향’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허위와 가식이 넘치는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가 존재했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향’에게 ‘돌아가자’고 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전설 같은 풍속’이 있던 공간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던 농경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그곳에 가면 ‘병들지 않은 젊음’과 ‘싱싱한 마음밭’을 지닐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에 화자가 살고 있는 현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가득하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존재하는 곳으로, 화자는 ‘향’에게 이러한 물질문명의 허위와 가식에 물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유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

**지문해설 :** (나)는 동화 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사온 그’의 집에 세워진 유리 담장은 어두운 골목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아이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담장의 즐거움에 취해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간다. 그 사이 잠시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는 골목에서 추방당한다. 결국 모든 유리 담장이 사라져 골목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권력자, ‘아이들’은 ‘우매한 군중’, ‘유리 담장’은 권력자가 우매한 군중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환영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시의 제목 ‘전문가’는 권력자들이 어리석은 군중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통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권력자의 기만적 통치술에 이용당하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그’가 이사 온 후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기만적 통치술을 지닌 권력자에 의해 우매한 군중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간단한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권력자들의 비열한 통치 전략과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며 옛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할 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수수력’, ‘미끈덩’은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낀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과거 경험했던 세계이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

용되지 않았고, 경이로운 상상 세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④ (가)에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변주한 ‘가자’, ‘가자꾸나’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시적 청자인 ‘향’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청유형 어조로 전달할 뿐 위로하는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골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할 뿐,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 3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곳이며,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곳이다. 이처럼 ㉠은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촌을 상징한다. ㉡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뜨렸던 공간인데, 유리 담장이 모두 깨지자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날’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은 ‘아이들’이 철없이 놀이만 즐기다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만 하게 된 공간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추방 이외에는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공간이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로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③ ㉠은 ‘향’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므로 낯선 공간은 아니다. ㉡은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가 추방당하고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일만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개성이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둘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은 ‘그’에 의해 ‘아이들’이 굴종당하는 곳으로,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 미개지’는 ‘오래지 않은 옛날’에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했던 공간으로, 화자가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고 한 것은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지금의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고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그동안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떼어내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

---

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리 담장’은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환영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기생충의 생리’에 인이 배기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송판 담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가 골목에서 추방당한 일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 화자가 ‘향’에게 그만두라고 한 행위인 ‘발돋움의 흥내’는 가식적인 현대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유리를 깬 것을 용서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유리 담장이 사라지자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① 38. ⑤ 39. ③ 40. ② 41. ⑤ 42. ④ 43. ④ 44. ①  
45. ③

[35~36] 언어

[35~36]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개념 및 양상’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작동되는지를 국어와 영어의 비교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1문단에서는 영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 및 음절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음운 규칙 역시 영어와 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비음화를 통해 예시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에 대한 이러한 차이가 말을 할 때뿐 아니라 말을 들을 때에도 작동됨을 설명하는데, 특히 영어를 듣는 과정에서 국어의 음절 구조에 부합하게 바꾸어 듣는다는 점과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으면 국어에서 가장 유사한 음운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의 인식 및 작동 양상

35. 음운의 이해

**정답해설** : ‘[밤만]’을 듣고 ‘밥만’을 복원했다면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결과이겠지만, ‘밤만’으로 복원했다면 음운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첫째 문단의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을 통해 ‘몫 → [목]’의 자음군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다. ② 둘째 문단의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라는 설명을 통해 음운 ‘ㄹ’이 그 자체로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는 뜻의 최소 단위가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의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를 통해 영어 ‘spring’을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작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의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를 통해 영어 ‘v’를 국어 ‘ㅂ’로 인식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앞일 → [암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음절 말 평파열음화는 ‘앞’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고, ㄴ 첨가와 비음화



는 ‘앞’과 ‘일’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넣고 → [너코]’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넣-’과 ‘-고’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 ‘굳이 → [구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굳-’과 ‘-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장미꽃 → [장미꼐]’에서는 음절 말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장미’와 ‘꽃’이라는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는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다. ㉣ ‘걱정 → [걱뽕]’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걱정’은 단일이므로 이러한 음운 변동이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37.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보습고저’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舍利弗씩’에는 객체 높임의 조사 ‘씩’이 쓰였다. 따라서 문법적 수단을 통해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는 것이다. ③ 조사 ‘씩’과 객체 높임의 동사 ‘습다’는 둘 다 객체인 ‘世尊(세존)’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④ 조사 ‘께’는 ‘이모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동사 ‘모시다’는 ‘어머님’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 ⑤ ‘선생님’이 주체이고, ‘그 아이’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동사 ‘여쭙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8. 형태소의 종류

정답해설 : ‘찾아냈다’는 ‘찾- + -아 + 내- + -었- + -다’로 형태소 분석이 되며, ‘찾-’과 ‘내-’는 ㉠에 속하고 ‘-아’, ‘-었-’, ‘-다’는 ㉡에 속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대명사 ‘우리’와 부사 ‘드디어’는 ㉠에 속한다. ② ‘비’, ‘길’은 ㉠에 속하고, ‘를’, ‘을’은 ㉡에 속한다. ③ ‘맞다’의 어간 ‘맞-’은 ㉡에, ‘맞서다가’의 접두사 ‘맞-’은 ㉡에 속한다. ④ ‘바람’은 ㉠에 속하고, ‘에’는 ㉡에 속한다.

### 39. 피동 표현

정답해설 : ‘밝혀졌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 ‘밝히다’에 ‘-어지-’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입히다’는 동사 ‘입다’에 ‘-히-’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이때의 ‘-히-’는 피동 접사가 아니라 사동 접사이다. ② ‘건네받다’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다. ④ 이 문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다.'처럼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다. '존경받다'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어지-'가 결합한 '이루어지다'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 [40~43] 매체

#### 4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서 '가입자 10만 명 돌파'는 기자의 발화 내용 중 '제도 실시 후 ~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를 요약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문형으로 표현된 '나도 가입해 볼까?'는 기자의 발화 내용을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가입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도의 주요 제재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부각하기 위해서 해당 글자를 다른 글자에 비해 더 크고 굵게 제시하였다. ③ ㉢에서는 '전 국민 누구나'와 같이 제도에 가입 가능한 대상과 누리집 주소를 추가로 제시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은 관계자의 발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와 같이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은 뉴스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뉴스 방송이 끝난 이후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에 쓰인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에서는 '만큼'을 통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조 용언 '있다'는 '화제가 되고 있는'에 쓰이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함'에 더해 '포인트를 받음'도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로,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말 어미이다.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4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제시 여부의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쓰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다회 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학생 3은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도 내용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⑤ 학생 5는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 제시된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다회 용기 선택!’,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는 다시 채워 쓰기!’, ‘물건 살 때 전자 영수증 받기!’는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수용자인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 이외에 QR코드를 함께 제시하여 수용자가 좀 더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나)는 돼지저금통과 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수용자로 삼는 (가)와 달리 (나)는 ‘◇◇고 친구들’로 수용자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나)에는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라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44~45] 매체

####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

**정답해설 :** 진행자의 발화 중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를 통해서 접속자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기획 내용이 방송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숫자만큼 꽃잎을 만들어야 하지만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경우 접속자들이 지루함을 느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발화 중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를 통해서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진행자의 발화에서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진행자의 발화에서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45. 수용자 특성

**정답해설 :** [C]에서 ‘꿈꼬미’는 방송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을 다시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빛세종’은 ‘채화’ 중 ‘채’의 뜻을 질문하여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B]에서 ‘햇살가득’은 만들 꽃을 골라 달라는 진행자의 발화에 대해 ‘월계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④ [D]에서 ‘아은맘’은 진행자가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 [E]에서 ‘영롱이’는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방송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